

타인에 대한 주의 유도가
만 4세 아동의 분배 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 제 완 한 규 옥 박 채 린 송 현 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 32 권 제 1 호 / 2019. 3.

한국발달심리학회

타인에 대한 주의 유도가 만 4세 아동의 분배 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 제 완 한 규 옥 박 채 린 송 현 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만 4세 아동을 대상으로 타인에 대한 주의 유도가 공평 분배 행동을 촉진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참가 아동은 독재자 게임의 분배자 역할로 참여해 자신과 사진 속 원숭이 인형에게 스티커 10개를 분배하였다. 참가 아동은 분배 행동 전 수혜자의 감정을 고려해 보는 정서 조건, 수혜자의 외양에 대해 생각해 보는 외양 조건 혹은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않는 통제 조건 중 하나의 조건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실험 결과, 정서 조건의 아동들과 외양 조건의 아동들은 통제 조건의 아동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많은 자원을 수혜자에게 분배했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 수혜자의 심리적, 신체적 정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동의 분배 행동을 촉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타인에 대한 주의 향상이 아동의 분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의 본질에 대한 논의점을 제공한다.

주요어 : 공정성, 주의 수준, 자원 분배, 감정 고려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SSK사업(NRF-2018S1A3A2075114)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본 논문은 제 2저자 한규옥의 석사논문 및 2018년 한국발달심리학회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송현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E-mail: hsong@yonsei.ac.kr

생애 초기부터 아동들은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이해를 보이고, 기초적인 친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인다(Hepach & Warneken, 2018). 예를 들어, 생후 6개월과 10개월의 아동들은 도움 행동과 방해 행동을 구분하며 도움 행동을 한 개체를 방해 행동을 한 개체보다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Hamlin, Wynn, & Bloom, 2007). 생후 24개월을 전후하여 아동들은 도움 행동, 달래기(comforting) 행동 등 다양한 종류의 친사회적 행동을 보인다(Dunfield et al., 2011). 친사회적 행동의 수혜자가 낮은 사람이거나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며(Warneken & Tomasello, 2006),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도움 행동을 받기를 기대한다(Hepach, Vaish & Tomasello, 2012).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들이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내재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자신의 자원을 타인에게 분배하여 공유(sharing)하는 행동은 대표적인 친사회적 행동 중 하나이다. 다른 친사회적 행동들과 마찬가지로 자원 분배 행동에 대한 기대 또한 생애 초기부터 나타난다. 예를 들어, 만 2세 아동들은 공평한 자원 분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이 자원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명시적인 정보가 주어졌을 때에는 실제로 자기가 가진 자원을 분배하는 모습을 보인다(Brownell, Svetlova, & Nichols, 2009; Geraci & Surian, 2011; Schmidt & Sommerville, 2011; Sloane, Baillargeon, & Premack, 2012). 학령기 아동들은 공평한 자원 분배에 대한 추상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학령기 아동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자원 분배 뿐 아니라 때때로 자신에게 유리한 자원 분배 또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Fehr, Bernhard, &

Rockenbach, 2008; McAuliffe et al., 2017). 심지어 비용을 지불해 불공평한 자원 분배를 한 제3자를 처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McAuliffe, Jordan, & Warneken, 2015).

그러나 공평한 자원 분배에 대한 기대와 실제 행동이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는다(Blake, McAuliffe, & Warneken, 2014). 독재자 게임을 이용한 실험에서 귀중한 자원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때 어린 아동일수록 자신에게 유리하게 자원을 분배하는 경향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독재자 게임은 성인의 자원 분배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진 행동경제학 패러다임으로, 최근에는 아동의 자원 분배 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심리학 실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임이다. 이 게임에는 자원의 분배자와 수혜자라는 두 가지 역할이 존재한다. 이 때, 자원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분배자의 역할이며 수혜자는 분배자의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이 게임의 규칙이다. 이러한 독재자 게임 상황에서 아동들은 전형적으로 이기적인 분배를 보이며, 이러한 경향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한다. Benenson 등(2007)에서 독재자 게임에 참여한 만 4세와 6세 아동들은 제공받은 자원의 20~30% 정도를 수혜자에게 분배하는 경향을 보였고, 만 9세 아동은 자원의 40% 정도를 나눠주는 모습을 보였다. 만 3-5세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 만 3세와 4세 아동들은 타인에게 어떤 자원도 분배하지 않는 선택을 가장 많이 하였고, 만 5세 아동들의 40% 정도가 공평한 자원 분배를 보였다(Gummerum et al., 2010). 아동들이 이득을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공평한 자원 분배 원칙을 어기는 경우도 빈번하게 존재하며, 자기에게 우호적으로 불공평한 분

배 선택을 하려는 이러한 경향성은 어린 아동들에게서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

어떤 변인들이 실제 상황에서 아동들의 공평 분배를 촉진시킬 수 있을까? 공평 분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는 분배자와 수혜자의 사회적 관계이다(진경선, 2018). 분배자는 수혜자가 자신과 같은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수혜자에게 좀 더 많은 자원을 분배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예를 들어, 독재자 게임에 참여한 성인들은 종교, 인종 등 다양한 범주에서 자신과 같은 집단 정체성을 가진 수혜자에게 더 많은 자원을 분배했다(Ben-Ner et al., 2009; Whitt & Wilson, 2007). 아동들 또한 내 집단 수혜자가 더 많은 자원을 가지기를 기대한다. 아동들은 내집단 수혜자가 불공평한 자원 분배를 받았을 때 처벌을 통해 개입하려는 모습을 보이며(Bernhard, Fischbacher, & Fehr, 2006), 분배자 인형이 낯선 사람보다는 가족과 친구에게 자원을 더 많이 분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Olson & Spelke, 2008). 아동들이 직접 자신의 자원을 분배하는 상황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아동들은 낯선 사람을 수혜자라고 생각할 때보다 친한 친구를 수혜자라고 생각할 때 더 많은 자신의 자원을 분배하는 경향을 보인다(Moore, 2009; Yu, Zhu, & Leslie, 2016). 최소 집단 상황에서도 아동들은 내집단 선호 현상을 보인다. 최소 집단 상황이란, 사회적 맥락 없이 임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집단을 구분해 놓은 상황을 말한다. 이는 집단의 형성과 구분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근본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고안된 실험 상황이다(Tajfel et al., 1971). 동전 던지기를 통해 집단이 임의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최소 집단 상황에서 아동들은 외집단보다 내

집단 수혜자에게 더 많은 자원을 분배하는 경향을 보였다(Dunham, Baron, & Carey, 2011; Sparks, Schinkel, & Moore, 2017).

아동의 공평 분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하나의 변인은 수혜자의 감정에 대한 고려이다. 예를 들어, 독재자 게임에 참가한 성인들은 수혜자로부터 감정적, 언어적 피드백을 받게 되는 조건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원을 더욱 공평하게 분배하는 경향을 보인다(Brook & Servatka, 2016; Ellingsen & Johannesson, 2008; Xiao & Houser, 2009). 아동들 또한 수혜자의 감정을 고려했을 때 자원을 더욱 공평하게 분배한다. 예를 들어, 아동들은 수혜자가 자원을 받지 못했을 때 높은 수준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 예측할수록 많은 자원을 분배하는 경향을 보이며(Paulus & Moore, 2015), 수혜자가 슬픈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때 더 공평하게 자원을 분배한다(Williams, O'Driscoll, & Moore, 2014).

단순히 타인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것도 아동의 공평한 자원 분배 행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하나 등(2014)에서는 만 4세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수혜자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 공평 분배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 참가한 아동들은 독재자 게임의 분배자 역할을 맡아 수혜자인 원숭이 인형과 스티커 10개를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였다. 이 때, 실험 조건의 아동들에게는 스티커를 분배한 후 원숭이 인형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것이라는 설명을 해준다. 통제 조건의 아동들에게는 위와 같은 설명 없이 일반적인 독재자 게임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수혜자가 감정을 표현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실험 조건의 아동들이 통제 조건의 아동들보다 자원을 더 공평하게 분배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고려는 성인과 아동의 공평 분배 행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혜자의 감정에 대한 고려는 어떤 기제를 통해 공평 분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첫째,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공감의 유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인식과 공감은 친사회적 행동과 많은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 생후 2년 전의 아동들도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에 민감하며 이러한 민감성은 친사회적 행동과 연관되어 있다(Roth-Hanania, Davidov, & Zahn-Waxler, 2011). 또한 학령전기 한국 아동의 공감 능력과 독재자 게임에서의 친사회적 행동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권주현, 박영신, 2013). 따라서 타인의 감정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친사회적 행동으로 공평한 자원 분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부정적인 감정과 연관되어있는 처벌 행동을 피하기 위해 공평한 분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불평등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 사람들은 상대를 처벌하려는 경향을 가지는데(Barclay, Skarlicki, & Pugh, 2005), 이러한 처벌 행동을 피하기 위한 행동 전략으로 공평한 분배 행동을 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공평한 분배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 처벌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공평한 분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감정에 대한 추론을 유도하는 것이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주의 수준을 높이고,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 증가된 관심이 공평한 분배를 유도할 수 있다. 어떠한 대상을 상대

로 행해지는 행동에는 자신이나 상대의 감정 고려 이외에도 상대의 정보의 질과 양, 행동에 대한 평가도 영향을 미친다 (Bae et al., 2013; Rullo, Presaghi, & Livi, 2015). Bae 등(2013)의 연구에서는 일면식이 없는 타인들과 협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협동을 통해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고 서로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흥미롭게도 과제를 수행하기 전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정보를 공유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서로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였고 협동의 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높았다. Rullo 등(2015)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이 속한 내집단 인물을 외집단 인물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외집단보다 내집단의 인물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의 친사회적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대상에 대한 정보 습득이 해당 대상에 대한 주의 수준을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친사회적 행동이 강화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 아동의 공평한 분배 행동을 증가시키는 기제의 본질을 검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유하나 등(2014)에서는 독재자 게임 상황에서 사진으로 제시된 자원 수혜자가 어떤 감정 피드백을 줄 것인지 예측하게 한 아동들이 그러한 지시를 받지 않은 아동들보다 더 높은 빈도로 공평한 분배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정 예측의 효과가 아동이 타인의 감정에 대해 추론하는 과정에서 유도되었다면 감정이 아닌 타인의 다른 특질에 대해 주의를 유도하는 것은 공평한 분배 행동의 향상을 촉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위의 세 가지 가능성 중 첫 번째나 두 번째 기제에 의한 감정 고려의 효과를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수혜자의 감정을 예측하는 상황에서 공평한 분배 행동이 증가하는 것이 감정에 대한 추론 과정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주의 향상으로 인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타인의 감정이 아닌 외양 등의 다른 특징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도 타인에게 자원을 좀 더 호의적으로 분배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위의 세 가지 가능성 중 세 번째 기제에 의한 감정 고려의 효과를 지지할 것이다. 즉, 타인에 대한 주의가 유도되었을 때 타인에 대한 선호나 긍정적 평가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아동들이 상대방에게 좀 더 호의적인 자원 분배를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원 수혜자의 감정 경험 이외의 정보에 대한 주의 유도가 아동의 분배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만 4세 아동 107명(평균 월령: 54.37개월, 월령 범위: 48.2-59.5개월, 남아 56명, 여아 51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만 4세 아동을 참가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 연령대의 아동들이 독재자 게임을 이해하고 참여하기에 무리가 없으며(Fehr, Bernhard, & Rockenbach, 2008), 타인에 대한 감정 고려가 만 4세 아동의 자원 분배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유하나, 이지현, 송현주, 김영훈, 2014). 참가 아동 모집을 위해 대구광역시 소재 유치원에 연구 참여 협조 공문을 발송해 연구 참여를 희망한 8개의 유치원을 선별했다.

해당 유치원 만 4세 아동들의 가정으로 실험에 대한 설명문을 발송해 연구에 참여할 아동들을 모집하였다. 참가 아동들은 정서 조건(emotion condition)에 35명(남아 16명, 여아 19명), 외양 조건(appearance condition)에 39명(남아 23명, 여아 16명), 통제 조건에 33명(남아 17명, 여아 16명)이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실험 도구 및 자극

아동의 분배 행동은 독재자 게임을 통해 측정하였다. 실험 자극으로는 원숭이 인형의 상반신이 나온 사진, 가로 및 세로가 각각 15cm인 두 개의 접시, 별 모양 스티커 10개, 세 가지 표정(웃는 표정, 중립 표정, 찡그린 표정)이 그려진 종이판을 사용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독재자 게임에서는 자원으로 주로 돈을 사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스티커를 자원으로 사용하였다. 스티커의 경우 종종 유치원에서 특정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가치 있는 자원으로 여겨진다. 또한, 독재자 게임을 이용해 아동의 자원 분배 양상을 알아본 선행 연구들도 아동들이 스티커를 귀중한 자원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한다(Benenson, Pascoe, & Radmore, 2007; Gummerum et al., 2010).

절차

Gummerum 등(2010)의 절차를 수정해 사용한 유하나 등(2014)의 독재자 게임 절차를 사용하였다. 참가 아동들은 독재자 게임의 분배자 역할을 맡아 자신과 사진 속 원숭이 인형에게 스티커 10개를 분배하였다. 실험이 진행

되는 테이블 위에는 원숭이 인형 사진과 자원을 분배할 접시가 놓여있었다. 아동은 원숭이 인형 사진과 마주 보고 앉았으며 두 접시는 각각 원숭이 인형 사진과 아동 앞에 놓였다. 연구자는 원숭이 인형 뒤에 앉아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시작 전 연구자는 아동에게 인사와 간단한 자기소개를 했다. 이후 연구자는 참가 아동에게 사진 속 인형 친구와 게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자는 별 모양 스티커 10개를 아동에게 주고 함께 스티커 개수를 세어 10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후 자신이 가지고 싶은 스티커는 아동 앞에 놓인 접시에 놓고, 사진 속 인형 친구에게 나눠주고 싶은 스티커는 인형 사진 앞에 놓인 접시에 놓으면 된다고 아동에게 설명했다.

실험에 참가한 아동들은 분배 행동 전 수혜자의 감정을 고려해보는 정서 조건(emotion condition), 수혜자의 외양에 대해 생각해보는 외양 조건(appearance condition) 혹은 통제 조건 중 하나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먼저, 정서 조건에 참여한 아동들에게는 분배 행동을 하기 전 분배 행동으로 발생하는 상대방의 감정을 예측하도록 했다. 세 가지 표정이 그려진 종이판을 제시하며 “OO(아동 이름)이가 스티커를 나눈 후에 사진 속 인형 친구가 기분이 좋으면 이런 느낌(웃는 표정 그림을 가리키며), 기분이 그저 그렇다면 이런 느낌(중립 표정 그림을 가리키며), 기분이 나쁘다면 이런 느낌(짜그린 표정 그림을 가리키며)일거야. 그럼 OO이가 스티커를 나눈 후에 사진 속 인형 친구가 어떤 기분일지 잠깐 생각해볼까? (표정 그림 전체를 보여주며) 말하지 말고 생각만 해보는 거야.” 라고 말해주었다. 다음으로, 외양 조건에 할당된 아동들에게는 분배 행동을 하기 전 수혜자의 외양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

였다. “여기에 있는 이 사진 속 인형 친구는 OO이랑 같이 게임 하려고 유치원으로 왔대. 이 친구는 오늘 여기로 올 때 신발을 신고 왔다던데, OO이가 인형 친구 신발이 무슨 색인지 한 번 생각해볼까? 말하지 말고 생각만 해보는 거야.” 라고 말하며 아동이 수혜자의 외양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상황을 조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 조건에 할당된 아동들에게는 다른 조건과는 달리 특정한 지시문이 제공되지 않았다. 즉, 통제 조건의 아동들은 일반적인 독재자 게임에 참여하였다.

실험 절차에 대한 설명은 아동이 이해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해주었으며, 설명 후 확인 질문을 통해 실험 절차를 완벽히 이해했는지 확인하였다. 자원을 나누는 행동은 타인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Haley & Fessler, 2005; Rigdon et al., 2009), 아동의 분배 행동에 미치는 연구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티커를 분배하는 동안 연구자는 고개를 숙이고 아동의 행동을 보지 않았다. 독재자 게임을 완료하고 난 후, 분배 행동에 대한 아동의 생각과 타인에 대한 감정 고려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모든 참가 아동에게 “OO이가 인형 친구에게 스티커를 X개 주었네. 왜 이만큼 나누어 주었어?”라는 질문과 표정이 그려진 종이판을 보여주며 “그럼 인형 친구는 기분이 어떨까? 이 중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서 OO한테 줄 것 같아?”라는 질문을 하였다. 아동이 대답을 마치면 실험을 종료하였다.

결 과

예비 분석 결과, 아동의 분배 행동에 대한

성별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 이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R(1, 105) = .46, p = .50$.

실험 조건에 따라 아동이 분배한 스티커 개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서 조건($M = 5.06, SD = 1.81$), 외양 조건($M = 4.92, SD = 1.77$), 통제 조건($M = 3.79, SD = 2.22$)간 분배한 스티커 개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104) = 4.44, p < .05$. Bonferroni 사후 분석 결과, 정서 조건에 참가한 아동들은 통제 집단에 속한 아동들보다 유의미하게 많은 자원을 수혜자에게 나눠주었다, $p = .02$. 또한, 외양 조건에 참가한 아동들은 통제 집단에 속한 아동들보다 유의미하게 많은 자원을 수혜자에게 나눠주었다, $p = .04$. 정서 조건에 참가한 아동들과 외양 조건에 참가한 아동들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p = 1.00$.

전체 참가 아동의 분배 행동 빈도를 분석해본 결과, 수혜자에게 스티커 5개를 나눠주는 공평한 분배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전체 아동의 49.5%가 공평한 분배를 하였다. 실험 조건별로 살펴보면, 정서 조건의 아동 51.4%, 외양 조건의 아동 61.5%, 통제 조건의 아동 33.3%가 공평 분배 행동을 보였다. 모든 조건에서 아동들은 공통적으로 스티커 5개를 나눠주는 공평한 분배를 가장 많이 보였다. 반면 스티커를 나누지 않고 자신이 모두 가지는 행동의 비율을 살펴봤을 때, 세 조건 중 통제 조건의 아동들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15.2%의 통제 조건 아동들이 상대에게 자원을 하나도 나눠주지 않는 분배 행동을 보였다. 정서 조건의 아동 2.9%, 외양 조건의 아동 2.6%만이 위와 같은 분배 행동을 보인 것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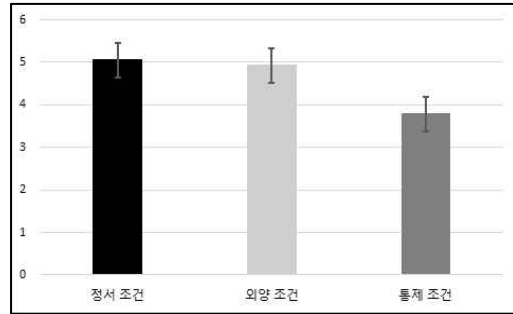


그림 1. 참가 아동들이 분배한 평균 스티커 개수

의 이기적 분배 행동을 한 것이다.

위와 같은 결과는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는 행동뿐 아니라 단순히 상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행동이 마찬가지로 공평한 분배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험 집단 간 공평과 불공평 분배 비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서 조건에 참여한 아동 71%는 공평 분배를 하였고 29%는 불공평 분배 행동을 보였다. 외양 조건에 참여한 아동 72%는 공평 분배를 하였고 28%는 불공평 분배 행동을 보였다. 반면 통제 조건에 참여한 아동 45%는 공평 분배를 하였고 55%는 불공평한 분배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의 외양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행동처럼 상대에 대해 단순히 주의를 유도하는 지시도 아동의 공평 분배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의 만 4세 아동을 대상으로 독재자 게임을 진행해 타인의 감정이나 외양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분배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선

행 연구(유하나, 이지현, 송현주, 김영훈, 2014)에서는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도록 유도했을 때 아동의 공평 분배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런 감정 고려의 효과가 감정이라는 특정적인 심리 상태에 대한 추론에서 비롯된 것인지, 상대방에 대한 전반적인 주의가 유도된 것으로 인한 것인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분배 행동 전 상대의 감정뿐만 아니라 외양 정보에 단순히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도 아동의 공평 분배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실험 결과, 외양 조건 아동들은 정서 조건 아동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평한 분배 행동을 보였으며, 통제 조건의 아동들과 비교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공평 분배 행동을 보였다. 즉, 상대의 정서적 경험뿐만 아니라 외양적 특성에 대한 주의 유도만으로도 아동의 공평 분배 행동이 향상되었다.

상대방의 감정뿐만 아니라 외양적 특질에 대해 주의를 유도하는 것이 아동의 공평 분배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유하나 등(2014)에서 나타난 감정 예측의 효과가 반드시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혹은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한 처벌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대신 이전 연구에서 나타난 감정 고려의 효과가 감정에 대한 추론 과정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주의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생겨났을 가능성을 지지한다. 감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타인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면 선호도가 증가하고, 따라서 더욱 공평한 분배를 하게 된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Bac 등(2013)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처음 보는 낯선 인물이라도 해당 인물

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면 그 인물에 대한 사회 지지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습득한 상대의 정보로 인해 해당 인물에 대한 주의 수준이 높아졌음에 기인할 수 있다(Bac et al., 2013; Rullo, Presaghi, & Livi, 2015). 같은 원리로 타인의 외양적 특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또한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증가시켜 공평한 분배 행동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주의 수준이 높아졌을 때 수혜자에 대한 선호가 증가했는지 측정하고, 향상된 선호도가 자원 분배 행동에 매개 변수로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대안적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상대방의 외양 등의 외적 특질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주의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양적 특질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명시적으로는 유도되었지만, 아동들이 암묵적으로 상대방의 심리적 특질, 특히 정서적 경험에 주의를 기울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원 수혜자의 정서를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평하거나 이타적인 분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후 질문에 대한 아동들의 대답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러한 가설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참가 아동들에게 분배 결정에 대한 이유를 물었을 때, 정서 조건의 아동 과반수 이상이 인형의 기분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기에 대해 언급을 한 반면 외양 조건의 아동 5% 만이 상대의 정서에 대해 언급하였다. 즉, 외양 조건 아동들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단순한 주의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켜 공평 분배를 향상시켰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 가지 추가적인 가능성은 본 연구에서 자원의 수혜자였던 원숭이 인형의 감정이나 신발 색깔과 같은 외양적 특질에 대해 생각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자원 수혜자가 좀 더 인간과 같은 특질을 가진 것으로 지각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인간화(humanization)하는 정보처리 과정이 원숭이 인형 수혜자에게 자원을 더 많이 분배하게 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상대방에 대한 비인간화(dehumanization)는 그 상대방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과정은 특히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고려되어 왔다 (McLoughlin & Over, 2018). 아동들은 외집단 구성원에 대해 내집단 구성원에 대해서보다 인간 고유의 심리적 특질을 덜 부여한다 (McLoughlin & Over, 2017). 하지만, 외집단의 정서적, 인지적 경험에 대해 생각하도록 유도하여 외집단 구성원의 인간적 특징을 주의를 기울이게끔 한 경우에는 외집단 구성원에 대해 조금 더 후한 자원 분배 행동을 보인다. 예를 들어, McLoughlin과 Over(2018)에서 만 5-6세 아동들은 외집단 구성원의 생각과 감정을 생각하게 유도한 조건 혹은 행동에 대해 생각하도록 유도한 조건에 할당되어 그림 속의 외집단 구성원에 대해 묘사하는 과제에 참여했다. 그 이후, 외집단에 대한 자원 분배 과제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생각과 감정을 생각하도록 유도한 조건의 아동들이 행동에 대해 생각하도록 유도한 조건의 아동들보다 외집단 구성원에게 유의미하게 더 많은 자원을 분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혜자의 인간적 특질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인간화하는 정보처리 과정이 분배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 원숭이 인형에 대해 인간화하는 정보처리 과정이 작

용했을 수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아동들이 원숭이 인형의 정서적, 외양적 특질에 대해 주의를 주었을 때, 원숭이를 인간과 같은 특질을 가진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이는지 검증해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주의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이 도움 행동, 달래는 행동 등 분배 행동 이외의 다른 친사회적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타인에 대한 공감과 도움 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존재하지만(Roth-Hanania, Davidov, & Zahn-Waxler, 2011; Vaish, Carpenter, & Tomasello, 2009), 주의 수준과 도움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도덕성 교육 측면에서 매우 실용적인 함의를 제공한다. 공평 분배를 증가시키기 위해 타인의 감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필요 없이 단순히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어렵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 권주현, 박영신 (2013). 마음의 이해와 공감이 독재자 게임에 나타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3), 117-138.
- 유하나, 이지현, 송현주, 김영훈 (2014). 감정 고려가 만4세 아동의 분배 행동에 미치는

-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2), 113-132.
- 진경선 (2018). 생애 초기 사회도덕적 추론.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3), 183-200.
- Bae, S., Jang, J., & Kim, J. (2013). Good Samaritans on social network services: Effects of shared context information on social supports for stranger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71(9), 900-918.
- Barclay, L. J., Skarlicki, D. P., & Pugh, S. D. (2005). Exploring the role of emotions in injustice perceptions and retali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4), 629-643.
- Benenson, J. F., Pascoe, J., & Radmore, N. (2007). Children's altruistic behavior in the dictator game.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8(3), 168-175.
- Ben-Ner, A., McCall, B. P., Stephane, M., & Wang, H. (2009). Identity and in-group/out-group differentiation in work and giving behaviors: Experimental evidenc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72(1), 153-170.
- Bernhard, H., Fischbacher, U., & Fehr, E. (2006). Parochial altruism in humans. *Nature*, 442(7105), 912-915.
- Blake, P. R., McAuliffe, K., & Warneken, F. (2014). The developmental origins of fairness: The knowledge-behavior gap.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8(11), 559-561.
- Brownell, C. A., Svetlova, M., & Nichols, S. (2009). To share or not to share: When do toddlers respond to another's needs?. *Infancy*, 14(1), 117-130.
- Brook, R., & Servátka, M. (2016). The anticipatory effect of nonverbal communication. *Economics Letters*, 144, 45-48.
- Dunfield, K., Kuhlmeier, V. A., O'Connell, L., & Kelley, E. (2011). Examining the diversity of prosocial behavior: Helping, sharing, and comforting in infancy. *Infancy*, 16(3), 227-247.
- Dunham, Y., Baron, A. S., & Carey, S. (2011). Consequences of "minimal" group affiliation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82(3), 793-811.
- Ellingsen, T., & Johannesson, M. (2008). Anticipated verbal feedback induces altruistic behavior.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9(2), 100-105.
- Fehr, E., Bernhard, H., & Rockenbach, B. (2008). Egalitarianism in young children. *Nature*, 454(7208), 1079-1083.
- Geraci, A., & Surian, L. (2011). The developmental roots of fairness: Infants' reactions to equal and unequal distributions of resources. *Developmental Science*, 14(5), 1012-1020.
- Gummerum, M., Hanoch, Y., Keller, M., Parsons, K., & Hummel, A. (2010). Preschoolers' allocations in the dictator game: The role of moral emotion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1(1), 25-34.
- Haley, K. J., & Fessler, D. M. (2005). Nobody's watching?: Subtle cues affect generosity in an anonymous economic game.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6(3), 245-256.
- Hamlin, J. K., Wynn, K., & Bloom, P. (2007). Social evaluation by preverbal infants. *Nature*, 450(7169), 557-560.
- Hepach, R., Vaish, A., & Tomasello, M. (2012). Young children are intrinsically motivated to see others helped. *Psychological Science*, 23(9), 1012-1018.

- 967-972.
- Hepach, R., & Warneken, F. (2018). Early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Revealing the foundation of human prosociality.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20, 4-8.
- McAuliffe, K., Blake, P. R., Steinbeis, N., & Warneken, F. (2017). The developmental foundations of human fairness. *Nature Human Behaviour*, 1(2), 0042.
- McAuliffe, K., Jordan, J. J., & Warneken, F. (2015). Costly third-party punishment in young children. *Cognition*, 134, 1-10.
- McLoughlin, N., & Over, H. (2017). Young children are more likely to spontaneously attribute mental states to members of their own group. *Psychological Science*, 28(10), 1503-1509.
- McLoughlin, N., & Over, H. (2018). Encouraging children to mentalise about a perceived outgroup increases prosocial behaviour towards outgroup members. *Developmental Science*, e12774.
- Moore, C. (2009). Fairness in children's resource allocation depends on the recipient. *Psychological Science*, 20(8), 944-948.
- Olson, K. R., & Spelke, E. S. (2008). Foundations of cooperation in young children. *Cognition*, 108(1), 222-231.
- Paulus, M., & Moore, C. (2015). Preschool children's anticipation of recipients' emotions affects their resource allocation. *Social Development*, 24(4), 852-867.
- Rigdon, M., Ishii, K., Watabe, M., & Kitayama, S. (2009). Minimal social cues in the dictator gam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0(3), 358-367.
- Roth-Hanania, R., Davidov, M., & Zahn-Waxler, C. (2011). Empathy development from 8 to 16 months: Early signs of concern for other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4(3), 447-458.
- Rullo, M., Presaghi, F., & Livi, S. (2015). Reactions to ingroup and outgroup deviants: An experimental group paradigm for black sheep effect. *PloS One*, 10(5), e0125605.
- Schmidt, M. F., & Sommerville, J. A. (2011). Fairness expectations and altruistic sharing in 15-month-old human infants. *PloS One*, 6(10), e23223.
- Sloane, S., Baillargeon, R., & Premack, D. (2012). Do infants have a sense of fairness?. *Psychological Science*, 23(2), 196-204.
- Sparks, E., Schinkel, M. G., & Moore, C. (2017). Affiliation affects generosity in young children: The roles of minimal group membership and shared interest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59, 242-262.
- Tajfel, H., Billig, M. G., Bundy, R. P., & Flament, C. (1971). Social categorization and intergroup behaviou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 149-178.
- Vaish, A., Carpenter, M., & Tomasello, M. (2009). Sympathy through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and its relation to prosocial behavior in toddlers. *Developmental Psychology*, 45(2), 534-543.
- Warneken, F., & Tomasello, M. (2006). Altruistic helping in human infants and young chimpanzees. *Science*, 311(5765), 1301-1303.
- Whitt, S., & Wilson, R. K. (2007). The dictator

- game, fairness and ethnicity in postwar Bosnia.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3), 655-668.
- Williams, A., O'Driscoll, K., & Moore, C. (2014). The influence of empathic concern on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Frontiers in Psychology*, 5, 425.
- Xiao, E., & Houser, D. (2009). Avoiding the sharp tongue: Anticipated written messages promote fair economic exchang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0(3), 393-404.
- Yu, J., Zhu, L., & Leslie, A. M. (2016). Children's sharing behavior in mini dictator games: The role of in group favoritism and theory of mind. *Child Development*, 87(6), 1747-1757.
- 1차원고접수 : 2019. 01. 15.
수정원고접수 : 2019. 03. 04.
최종게재결정 : 2019. 03. 05.

Drawing attention to recipients' emotion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promotes generous resource allocations in preschoolers

Jewan Park

Kyu-ok Han

Chae-rin Park

Hyun-joo Song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enhanced attention to other's emotion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can promote 4-year-olds' ($N = 107$) sharing behavior in a dictator game. In this experiment, participants distributed 10 stickers between themselves and a monkey puppet in a picture. Before starting the game, children in emotion condition were asked to guess how the recipient monkey would feel (happy, neutral or sad) after receiving stickers to draw children's attention to recipient. Children in the appearance condition were asked to think about the color of monkey's shoes. In control condition, children participated in a standard dictator game without any previous instruction. As a result, children in the emotion and appearance condition distributed significantly more stickers to the recipient than those in the control condition. This result suggests that enhanced attention to recipients' emotion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can enhance children's fair behavior in a resource sharing task.

Key words : fairness, attention, sharing, emotion understanding